

# 〈이춘풍전〉 속 해결형 남장 화소와 그 교육적 시사점

남장 화소의 네 유형을 중심으로

A Preliminary Study on the Problem-Solving Cross-Dressing Motif in <Ichunpungjeon>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Four Types of Cross-Dressing Motifs

유요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전소설에 나타난 남장 화소 중 '해결형' 남장 화소에 주목하여, 그 서사적 특징과 교육적 함의를 분석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남장 화소를 주로 여성영웅소설에 집중하여 젠더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에 반해, 본 연구는 남장 화소를 네 가지 기능적 층위에서 탈출형, 활약형, 휘절형, 해결형으로 구분하고, 특히 해결형 남장 화소가 갈등 해결과 질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19세기 국문 세태소설 〈이춘풍전〉을 중심으로, 남장의 동기와 수행 양상, 갈등 해결 방식과 서사적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해결형 남장 화소는 여성 인물이 남장을 통해 공적 권위를 일시적으로 얻는 속임수로써, 그 권위를 활용하여 위기 상황을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서사 구조를 지닌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젠더 전복이 아닌, 주체의 문제 해결 전략을 실험하는 이야기 장치로 기능하며, 독자에게 문제 상황을 능동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나아가 본고는 해결형 남장 화소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을 설계하고 해결 서사를 창안해보는 학습 활동의 실제 사례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고전소설 속 남장 화소를 젠더 담론의 한계를 넘어 '서사적 사고 실험'의 장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핵심어** 해결형 남장 화소, 〈이춘풍전〉, 서사 시뮬레이션, 고전문학 교육, 속임수 권력

- 차례**
1. 들어가는 말
  2. 남장 화소의 네 가지 유형과 그 특징
  3. 해결형 남장 화소의 서사적 전개
  4. 해결형 남장 화소의 교육적 시사점
  5.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그간 여성영웅소설 속 젠더 문제로 점철되어 온 연구 및 교육 현장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남장 화소의 새로운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남장(男裝) 화소는 여성이 남성의 복장을 입고 남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는 '남복개착(男服改着)' 혹은 '여화위남(女化爲男)'으로 정의된다. 고전소설 전반에서 중요한 서사 장치로 기능해 온 이 화소를,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본고에서는 ‘남장 화소’로 통칭한다.<sup>1</sup>

남장 화소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았으나 해당 화소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었다.<sup>2</sup> 대부분의 논의는 남장 화소를 여성영웅소설의 일부 요소로 간주하며, 여성영웅소설 장르의 특성과 함께 다루었다. 여성들이 남장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중세 사회의 제약을 전제로, 남장은 곧 여성의 주체적 선택과 사회적 진출을 상징하는 장치로 이해되었다. 이로 인해 남장 화소는 전통적 가치 규범을 전복하는 여성의 능동성과 결부되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강한 여성을 부각하려는 여성주의적 독법과 더불어, 남장을 근대적 주체의 탄생으로 연결하려는 내발론적 관점, 즉 전통 사회 내부에서의 여성 각성을 역사 진보로 읽는 해석적 시각이 내포된 측면이 있다.

1 본고에서 사용하는 ‘남장 화소’는 여성 인물이 남성의 외형 또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연기하거나 가장하는 이야기 장치를 통칭하는 바, 이는 이야기 전개에 따라 소재적 단위로 기능할 수도 있고, 전체 구조를 이끄는 서사 장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화소’는 모티프보다 구체적이고, 플롯보다 작으며, 반복 가능한 서사의 단위로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용어를 ‘남장이 서사 내에서 일정한 기능과 효과를 발휘하는 장치’로 확장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본고의 분류는 ‘남장 화소’가 단순한 장면적 장치에 머물지 않고, 갈등 전개의 동인으로 작용하거나 주제 의식과 서사 구조를 이끄는 수준에서 기능적으로 유형화할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정의는 ‘여화위남(女化爲男)’이나 ‘남복개착(男服改着)’처럼 외형적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소재적 접근과는 구별되며, 서사적 작동과 의미 층위를 함께 고려한 개념화이다.

2 유일하게 최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에서 다루고 있지만 고전장편소설로 한정하여 분석하여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문소설의 남장을 중심으로 여성영웅소설, 국문장편소설의 남장과 비교 연구를 개진한 유요문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요문, 「〈낙동야언〉에 나타난 남복개착의 문제 해결적 성격과 그 소설사적 맥락」, 『Journal of Korean Culture』 64,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24, 255~284쪽.

3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연구 목록만 소개하도록 한다. 아래의 연구사들도 마찬가지다.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 62·63 합번호, 국어국문학회, 1973; 전운문,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차옥덕, 「방한림전의 여성주의적 시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윤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2000; 정병헌·이유경,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이유경, 「고소설의 전생 소재와 여성영웅 형상: 여성영웅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학회, 2003;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학회, 2006.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남장을 여성이 남성성을 지향하는 행동으로 해석하며,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가부장제 질서를 강화하거나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요컨대 여성의 적극성과 능동성은 기존 사회 질서 내에서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기능하며, 남장은 특이하긴 하나 체제를 전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sup>4</sup> 최근에는 이러한 이분법적 해석을 넘어, 남장을 수행하는 여성을 ‘혼종적 주체’로 파악하거나, 남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억압된 사회적 조건에 주목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 해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구사적으로도 유의미하다.<sup>5</sup>

한편, 고전소설 교육 연구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을 학습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들 교육 모델은 강인한 여성상과 가부장 질서의 전복을 강조하는 점에서 앞선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sup>6</sup> 최근에는 젠더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려는 교육적 접근도 등장하였다. 이는 이분법적 해석에서 벗어나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7</sup> 남장 화소는 이처럼 학습자에게

4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7(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이인경,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 사제동 편,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IV, 중앙문화사, 1995;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학회, 2001; 엄태웅, 「〈방한림전〉에 나타난 가부장의 부재와 재현의 양상」,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조현우, 「방한림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학회, 2016.

5 이지하,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소설」,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정병헌, 「방한림전의 비극성과 타자 인식」,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김정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본 여성영웅 홍계월」,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박혜숙, 『한국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이유리, 「방한림전의 소수자 가족 연구」, 『한국문학논총』 75, 한국문학회, 2017; 조홍윤, 「〈방한림전〉에 나타난 젠더 문제의 맥락 연구: ‘남성 만들기’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6 김민경,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홍계월전〉 교육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최진경, 「여성영웅소설 교육 방안 연구: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7 이유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 〈홍계월전〉과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3, 한

다양한 성 역할을 상상하게 하며, 전통 규범을 교란하거나 감정의 여러 차원을 탐색하게 해주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또한 여전히 전복과 대립, 권력 관계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해석의 폭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sup>8</sup>

교육 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중등 국어 교과서에는 여성주인공을 내세워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했기에 조선후기 여성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다고 보거나, 남성 중심적인 세계에 선망을 중심으로 한 결과이지만, 이면에는 무능한 남자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능력 있는 여자가 자아를 펼치지 못하는 시대적 한계가 드러나 있다는 해제가 덧붙여 있다.<sup>9</sup> 또한 『EBS 2024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의 경우 <방한립전>이 그 대상이었는데, 3번 문항 <보기>에 “여성 영웅의 형상에 여성의 경험과 욕망이 투영되어 있으리라는 추론을 가능”<sup>10</sup>하다고 말하며 여성영웅소설이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면모가 담겨 있다는 비평을 내놓았다. 이는 2022년의 『EBS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국어영역 독서·문학』에서 <정수정전>에 대한 감상포인트를 “조선 후기 여성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11</sup>고 말한 부분과도 일치한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남장을 가부장제 전복의 상징으로 다루는 시각이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남장 화소에 대한 논의가 여성영웅소설 장르에 지나치게 국한되어 왔다. 실제로 남장 화소는

다양한 장르에서 나타나며, 그 기능과 의미 역시 장르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둘째, 남장 화소에 대한 해석이 젠더 이론 중심으로만 수렴되면서 그 밖의 기능적·미적 측면이 간과되어 왔다. 물론 젠더 교육은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만, 동시에 그것이 해석의 유일한 틀로 작동할 경우 학습자의 상상력과 해석의 자율성을 제약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글은 여성영웅소설 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남장 화소에 주목하여 그 기능을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자 한다(2장). 특히 19세기 소설인 <이춘풍전>에 나타난 ‘해결형 남장 화소’를 중심으로, 남장 행위가 단지 젠더 전복의 상징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한 갈등 조정, 서사 전환 등 시뮬레이션을 위한 실질적 장치로 기능함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3장).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해결형 남장 화소의 서사적 실천성과 교육적 효과를 재조명하며, 고전소설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4장)하고자 한다.

## 2. 남장 화소의 네 가지 유형과 그 특징

이 장에서는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남장 화소를 조망하고, 그 내적 기능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분류는 장르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남장 화소가 수행하는 서사적 기능과 효과에 주목한 것이다. 본고는 남장 화소를 ① 탈출형, ② 활약형, ③ 해결형, ④ 해결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 중 해결형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아래는 각 유형의 개요를 정리한 표이다.

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이지원, 「젠더 의식 중심의 여성영웅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8 흥미로운 것은, 교육 논문에서 남장 화소가 기존 규범 질서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다룬 논의는 개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마도 학습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9 이지원, 앞의 논문, 138쪽 참조.

10 EBS교육방송 편집부,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2023)(2024 수능 대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2023, 129쪽.

11 EBS교육방송 편집부, 『EBS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국어영역 독서·문학(2022)(2023학년도 수능대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2022, 230쪽.

〈표 1〉 남장 화소의 네 가지 유형

유형	주요기능	대표예시작품
탈출형	생존 도피	〈최척전〉,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등
활약형	능력 발휘	〈하진양문록〉, 여성영웅소설류 등
혜절형	이념 전복	〈구운몽〉, 〈옥루몽〉, 〈삼선기〉 등
해결형	갈등 해결	〈낙동야언〉, 〈이춘풍전〉 등

### 2.1. 탈출형: 위기에서의 생존 도피

‘탈출형’은 남장 화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여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회피하거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남장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고전소설 속 남장 화소의 등장은 대개 개인적 위기 또는 공동체적 위기의 상황에서 시작된다. 주인공은 자발적으로 남성의 복장을 하고, 사회적 이동과 안전한 도피를 꾀한다.

예컨대 17세기 소설들을 보자. 한문소설 〈최척전〉의 옥영은 왜적의 침입이라는 전란의 상황에서 남장을 통해 생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상인의 삶을 이어간다. 〈창선감의록〉의 진채경은 그녀의 아버지가 간신 엄승에게 모함을 받아 위협에 처하게 되자, 엄승의 양자 조문화의 늑혼을 거짓으로 받아들여 아버지를 구하고 자신은 변복해 회남으로 도망가기도 한다.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의 이옥주는 도적에게 쫓기다 남장한 채 길을 나서고, 〈구운몽〉의 적경홍은 추격을 피하기 위해 ‘적백란’이라는 가명으로 남장을 하고 도피한다.

이처럼 탈출형 남장 화소는 부모의 죽음, 늑혼, 전쟁 등 위기를 마주한 여성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도망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하며,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여러 작품들에서 하나의 클리셰로 반복된다.

### 2.2. 활약형: 능력 발휘와 공적 진출

‘활약형’은 여성 주인공이 단순히 위기를 회피하는 데서 나아가, 남장을 유지한 채 문무의 능력을 발휘하고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초기 남장 화소의 생존 기능에서 확장되어, 여성의 공적 진출과 영웅적

성장을 중심에 둔다. 이를 통해 남장 화소가 소설사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고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전소설 교육 연구나 수업 현장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여성영웅소설의 대부분이 이 활약형에 속한다. 그런데 이 활약형 남장 화소는 여성영웅소설 장르로만 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최근 국문장편소설에서도 여성영웅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sup>12</sup> 이들 여성들도 남장을 입고 활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문장편소설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은 난세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무술을 연마하며 장원급제의 영예를 얻는다. 〈하진양문록〉의 하옥윤 또한 선계(仙界)에서 능력을 기른 뒤 인간세상에 내려와 하재옥이라는 이름으로 남장을 유지하며 다양한 활약을 펼친다.

이들 활약형 남장을 하는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임을 철저히 숨기며 서사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그 정체가 밝혀진다. 여성이라는 비밀을 최대한 숨기려는 존재들인 셈이다. 예를 들어, 하옥윤은 남자 주인공인 진세백에게 여성임이 드러나고 과거 정혼자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지만, 결혼을 거부하며 여성 정체성으로의 복귀를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 남성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내면의 긴장이 활약형 남장 화소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활약형 남장 화소는 장르 간 미세한 차이가 존재할 뿐 남장의 지속성, 활약을 위한 목적성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는다.<sup>13</sup>

12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한길연, 「영웅소설과 대하소설의 주인공의 환상체험의 차이와 그 의미」, 『한국문화』 4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 국문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 형상화 비교」,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김태영, 「『하진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소설 화소의 활용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57, 우리어문학회, 2017; 김태영, 「조선 후기 고전소설 속 여성 영웅의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3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활약형 남장 화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요문, 앞의 논문, 267~268쪽.

### 2.3. 휘절형: 규범 전복과 유희적 접근

‘휘절형’은 남장을 통해 사회 질서나 이념을 전복하거나 전복적 관계를 연출하는 유형이다. 탈출형이나 활약형이 위기 극복이나 능력 입증을 목표로 한다면, 휘절형은 성 정체성의 전복적 전개와 감각적 유희가 중심이다.<sup>14</sup>

예를 들어 보자. <구운몽>에서 봤던 적경홍은 적백란으로 남장한 후 양소유와 만나 그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평소 친분이 있던 낙양의 기녀 계섬월과 모의하여 양소유를 속이는 일을 꾸민다. 양소유는 계섬월과 이전에 친분을 나눴던 사이기에 자연스레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드는데, 다음 날 일어나보니 계섬월은 없고 일면식 없던 적경홍이 옆에 있어 매우 놀란다. 그리고 셋은 함께 운우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또한 이 유형은 국문소설 <삼선기>에서 잘 나타난다. <삼선기>의 여주인공인 홍도화와 유지련은 평안도 기녀 출신으로 평생 글만 읽은 이춘풍에게 의지하고자 남복을 하고 이름을 각각 홍명학과 유봉학으로 개명하여 그의 제자로 들어간다. 그 후 속이기를 통해 춘풍의 절개를 무너뜨린 그녀들은 춘풍과 함께 음률로 인생을 즐기면서, 중국엔 12 교방(敎坊)을 창설하여 그것을 다스리는 인물이 된다.

이처럼 휘절형은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여성 주체가 남장을 통해 기존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재조정하며, 남성 인물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형이다. 이는 활약형이 공적 시스템으로 진입하고 전투를 통해 성취를 이루는 서사와는 구별되며, 관계의 주도성과 유희적 실천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2.4. 해결형: 갈등의 실질적 해결

‘해결형’ 남장 화소는 위기 상황을 단순히 탈출하거나 사회에서 능력을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주체가

갈등 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습하는 서사 구조에 초점을 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휘절형처럼 남장이 일시적으로 사용되며, 남장 해체에 따른 내적 갈등, 두려움 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활약형의 경우, 여주인공이 남장 상태를 유지하는 데 따른 긴장과 정체성의 혼란이 서사 전반을 지배한다. 예컨대 여성영웅소설 <이대봉전>에서는 여주인공 장애황을 남성으로 착각한 천자가 그녀와 이대봉이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그들을 각각 자신의 공주와 결혼시켜 부마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장애황은 이대봉과 어려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더욱이 공주와 결혼하는 것 역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장애황은 자신이 이대봉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처럼 활약형 남장 화소는 이 여주인공의 ‘내적 고뇌’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해결형에서는 이러한 긴장이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해결형은 휘절형과 달리 로맨스보다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휘절형은 위기 상황 탈출이나 해결에는 큰 관심이 없다. 또 탈출형이나 활약형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주력했다면, 해결형은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고 해소하는 주체적 행위를 서사화한다. 이로 인해 서사적으로는 다소 국소적인 구조를 띠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여성 주체의 형상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고전소설의 남장 화소 유형은 그 기능과 특징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남장 화소는 위기 상황에서 도피하는 탈출형을 기본으로, 여성의 공적 진출과 성과를 중시하는 활약형, 남성의 기존 가치를 재편시키는 휘절형,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계하는 해결형으로 나뉜다. 다음 장에서는 해결형 남장 화소의 미감과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4 보통 남녀간의 애정을 다루면서도 남성들의 휘절담을 다룬 것을 남성 휘절소설로 일컫는다(여세주, 『남성휘절소설의 실상』, 국학자료원, 1995). 필자는 이 중에서 남장 화소를 채택해 남성을 휘절시키는 작품들을 휘절형 남장 화소라 지칭했다.

19세기 국문 세태소설 <이춘풍전>을 중심으로 분석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 3. 해결형 남장 화소의 서사적 전개

본 장에서는 앞서 정의한 ‘해결형 남장 화소’의 서사적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9세기 국문 세태소설인 <이춘풍전>을 중심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이춘풍전>은 무능하고 타락한 남성을 교정하고,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체가 남장을 수행하는 서사를 지닌다. 이 작품에서의 남장은 단순한 위장이나 도피 수단이 아니라, 공적 권위를 ‘흉내’ 내지 ‘연기(演技)’함으로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해결형 남장 화소의 전형적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sup>15</sup>

나아가 본 장의 분석을 통해, 해결형 남장 화소의 여성 주체가 서사 내에서 능동적으로 위기를 설계하고, 상황을 수습하며, 사회적·도덕적 질서를 재구성하는 장치로 기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은 해결형 남장 화소의 서사적 기능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1) 남장의 동기와 수행 양상, 2) 갈등 해결 방식과 서사적 효과라는 두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15 지금까지의 <이춘풍전> 연구사는 주로 춘풍의 아내 김씨의 행위에 주목해 왔으며, 그 중 상당수는 그녀의 행동을 근대성과 연결짓거나, 이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왔다. 관련한 논의는 권순공의 정리에 잘 요약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개별 연구에 대한 상세 검토는 생략한다(권순공, 『<이춘풍전> 연구사』, 『고소설연구』, 월인, 2002, 849~862쪽). 2000년대 이후의 대표적인 논의로는 장경남(2001), 조현우(2012)의 연구가 있으나, 이후 <이춘풍전> 연구는 인물 중심보다는 이본 및 교육 활용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김씨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해석은 뚜렷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특히 남장 화소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는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이춘풍전> 속 남장 서사의 서사적 구조와 교육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장경남, 『<이춘풍전>을 통해 본 가부장권의 형상』, 『우리문학연구』 14, 우리문화회, 2001; 조현우, 『19세기 남성 주체의 ‘곤경’과 ‘환멸’: <이춘풍전>의 공간과 인물 구도』, 『고소설연구』 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이춘풍전>을 분석하고, 19세기 한문소설 <낙동야언>은 비교 사례로 간략히 참조함으로써,<sup>16</sup> 해결형 남장 화소가 위기를 조율하고 서사를 설계하는 주체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해결형 남장 화소가 단순히 젠더 전복의 장치가 아닌, ‘서사 시뮬레이션의 장치’로서 학습자에게 문제 해결적 사고를 배양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춘풍전>에서 이춘풍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가산을 모두 탕진하나 춘풍의 처(妻) 김씨 덕분에 다시 가산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춘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호조(戶曹)에서 이천 냥을 빌려 평양으로 사업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평양 기생 추월이 이춘풍의 돈을 탐내 그를 유혹하고, 돈을 모두 잃은 이춘풍은 결국 추월의 사환(使喚) 노릇을 하며 지내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김씨는 이춘풍을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평양 감사로 내정된 승지 닥의 노모를 지극히 모시는 것이었다. 이후 승지 닥이 평양 감사가 되자, 노모 역시 아들을 따라 평양을 가게 되고, 이때 노모는 춘풍의 처가 고마워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부인이 일느마리,

“너도 평양으로 느려갈 제, 네도 함께 싸라가서 춘풍이느 차져 보라.”

하니, 춘풍 안히 엇즈오디,

“소녀는 고사하옵고 오리비 잇스오니 비장으로 부리실가, 츠분(處分)을 브리느이다.”

디부인이 이른 마리,

“네 청이야 아니 듯짓는가? 그리하라.”

허락호고, 감스계 그 말을 하니 감스도 허락호고,

16 보완적으로 19세기 한문소설 <낙동야언>을 간단히 참조할 것이다. 이 작품 역시 여성 주체가 남장을 통해 혼사 위기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구조를 취하지만, <이춘풍전>과 달리 유세와 설득 중심의 전략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상이한 결을 보인다. 이 비교를 통해 해결형 남장 화소가 단일한 전개 양상이 아닌, 서사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실천 방식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호계 비장 하라.”

하니, 조홀시고 조홀시고. 춘풍의 안히 읊든 오리비 보닐 손가? 제가 손슈 가랴 호고, 여즈의 의복 버셔 노코 남복(男服)을 치레호되, 외울당끈(綱巾) 관즈(貫子) 다라 밋시 잇게 질근 씨고, 천은 갖튼 증주 타관, 삼빅 디 진사님의 만호 갖튼 산호 격즈(珊瑚格子) 두 귀 밋히 접쳐 달고, …(중략) 한삼 속의 넉짓 쥐고 흐령거려 닙다 셔니, 표연호 기남즈(奇男子)라.<sup>17</sup>

위의 인용문은 김씨가 비장(裨將)으로 남장하는 장면이다. 노모의 요청을 받은 김씨는 자신을 데려가는 대신 자신의 오라버니를 비장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이를 승낙한 노부인은 아들에게도 부탁해 김씨의 오라버니가 비장 직책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김씨에게는 오라버니가 없다. 즉, 그녀는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남장이라는 수단을 활용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춘풍의 처는 어떤 문제에 당면하고 있었는가? 당시 그녀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가부장이 부재하여 가문과 가족이 해체되기 전이었고, 남편이 기생과 불륜하여 본처인 자신을 살피지 않는 외로운 처지에 더하여 춘풍이 호조에서 빌린 돈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요컨대 김씨는 경제적, 정신적, 공동체적으로 소외된, 복합적 문제 상황을 겪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계책’이나 ‘피’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비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즉 공적 권위를 빌리는 방법이다.

여기서 해결형의 남장 화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활약형은 여성이 공적 사회로 진출하려면 남장을 통해 남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결형은 조금 다르다. 즉 활약형이 출장입상(出將入相), 명예 추구 등 뚜렷한 목적의식 하에 남장을 한다면, 해결형은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

하려는 목적에서 남장을 한다. 다시 말해 활약형의 경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정체성, 자기 증명과 관련된 질문에서 남장 화소가 서사에서 형성된다면, 해결형은 ‘이 사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전략적 선택, 상황 전환과 관련하여 남장 화소가 서사에서 배태된다. 그래서 비장이라는 공적 지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더 높은 지위로의 상승은 서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남장의 지속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위의 인용문 바로 다음 장면에서 남장한 춘풍의 처가 노모에게 차를 가져다 주면서 “춘풍의 처(妻) 문안호호”<sup>18</sup>라는 부분을 보면, 그녀는 남장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곧장 자신의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남장한 사실이 이춘풍과 추월을 제외한 나머지에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게 된다. 보통 남장은 여화위남(女化爲男), 즉 변성(變性)을 한 것이기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위험을 내재한다. 그래서 활약형에서는 이에 대한 경계나 두려움 등이 천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표현된다. 그러나 해결형은 남장에 대한 두려움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노모나 평양 감사 모두 사실을 알고 난 후 ‘박장대소’할 우스개스러운 일로 여긴다. 즉 여가에서의 남장은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는 장치 정도로 소비될 뿐이다.

이처럼 <이춘풍전>에서 남장은 여성 주체가 자기 증명이나 신분 상승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장치로 기능한다. 이제 남장을 수행한 주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 상황에 개입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녀가 남장의 상태로 공권력을 행사하며 남편과 기생을 어떻게 교정하고 처벌하는지를 중심으로, 해결형 남장 화소의 실질적인 서사 작동 방식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어떤 서사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 화소가 지닌 기능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17 <이춘풍전>(서울대 가람문고본);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6, 아세아문화사, 1980, 493~549쪽 영인; 신해진, <이춘풍전>, 『역주 조선 후기 세태소설선』, 월인, 1999, 347~348쪽 재인용.

18 신해진, 위의 책, 348쪽 재인용.

비장 행세를 하면서 추월의 집을 찾아간 김씨는 걸인(乞人)처럼 지내는 남편 이춘풍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후 춘풍을 관아로 부른 김씨는 춘풍이 호조의 돈을 갚지 않은 죄목으로 태형을 치게 하면서 그 돈을 누구에게 썼는지 말하게 한다. 그러자 태형을 버티지 못한 이춘풍은 호조에게 빌린 모든 돈을 기생 추월에게 탕진했다고 밝힌다. 이에 비장은 추월을 잡아 장을 쳐서 죄를 묻게 된다.

군노 등이 두 눈을 부릅쓰고 형장(刑杖)을 뚫어 드려, 백일 청천(白日青天)의 별아 치듯, 만첩청산(萬疊青山) 울리하듯, 금장소리 호통하며 하는 말이,

“네가 일정 발명치 못할가? 너을 우선 죽기리라.”

하고, 유장으로 기르면서 오십 두 중장하고,

“뱃비 다짐 못할손야?”

설리 갖치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삼흔칠씩 너러는든  
혼미 중의 겁너여 죽기를 면할야 하고 이결하여 옛조오디,

“국법(國法)도 엄숙하고, 관령(官令)도 지엄하고, 날이임 분부도 엄호오니, 춘풍의 가져오 돈을 영문 분부디로 소여가 밋치리다.”

비장이 하는 말이,

“호조의셔 관조 노와 ‘너을 뱃비 죽기라’ 하여스되, 네 죄을 네가 알고 ‘돈을 모다 바치마’ 하니 너을 살려 유건니와, 호조 돈 잇조는 주문지예로 오천 양을 몰슈히 례봉하라.”

추월이 옛조오디,

“십일 말미을 유읍스면 오천 양을 밋치리다.”<sup>19</sup>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비장으로 남장한 김씨는 비장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이춘풍과 추월을 속인다. 김씨의 행위는 잠시 비장의 권위를 빌려오는 것과 비슷하다. 그녀는 비장이 아니지만 잠깐 비장처럼 행동함으로써 권위를 얻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추월과 이춘풍을 단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추월을 겁박하여 춘풍이 호조에서

빌린 이천 냥과 더불어 이자까지 더해 모두 오천 냥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가산 확장을 이룩한 여성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남장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활약형과 매우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활약형은 공적 위치에 서서 권력을 실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남장이 해제된 이후에도 나타난다. <정수정전>에서 남편 장연의 애첩이자 왕부인의 총비인 영춘을 무례하다는 이유로 베어 죽이면서 부부-고부 갈등이 전개되는데, 화가 난 정수정은 자신의 영지인 청주로 떠나게 된다. 청주 후(侯)라는 지위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 부부 갈등은 원수가 된 여성영웅이 남편에게 매질하는 ‘골탕 먹이기’ 서사가 나타나 권력의 상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sup>20</sup> 이처럼 활약형의 남장은 실제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해결형의 경우에는 남장이 일시적인 권위만 빌려올 뿐, 여주인공이 가진 실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해결형은 주체의 ‘속임수’와 거기에 속는 대상들 사이에서만 권력이 제한적으로 작용한다. 즉 여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나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인물로 가장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속임수 권력(deceptive authority)’<sup>21</sup>이

20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부부 갈등과 골탕 먹이기의 희극적 성격에 대해서 논의한 논문은 다음을 참조하라. 사진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 양상」,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상(上), 집문당, 1998, 571~572쪽; 유요문, 「고전소설에 나타난 남녀 관계 갈등 전환 양상과 여성영웅소설 다시 읽기: 현대 혐관(嫌關) 서사 유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103, 우리말글학회, 2024, 419~421쪽 참조. 한편 서혜은은 이에 대해 “정수정의 장연에 대한 일방적인 치죄 또는 처벌에 가깝다”고 하여 여성영웅의 권력 우위를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서혜은, 「〈정수정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2006, 279쪽 재인용.

21 필자가 말한 ‘속임수 권력(deceptive authority)’은 바흐친이 말한 카니발 이론 중 가면의 연극적 기능과 맞닿아 있다. 연기하고 흉내내는 가면 놀이는 해결형 남장 화소의 기능과 흡사하다. 그리고 그 가면을 통해 민중들은 중심 질서를 해체, 교란, 조정하기도 하며, 축제가 끝난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시적 성격까지, 무엇보다 남장을 통해 권력(무능한 가부장, 폭력적 늑혼) 등을 조롱한다는 점에서도 해결형 남장 화소가 그리는 유희성과 동떨어 있다(미하일 바흐친, 이덕형·최건형 역, 『프랑스어 라블레의 작품

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이는 제도적 힘이나 신분의 우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속아넘어갈 수 있는 ‘그럴듯한 외피’를 통해 일시적으로 발휘되는 권력이다. 그 결과, 갈등 해결은 권력의 구조적 전복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일시적 위장과 연기에 기반한 것으로 구현된다.

해결형 남장 화소는 목적을 성취하고 갈등이 해결된 후에는 권력도, 남장도 모두 사라진다. 일시적 성격이 강하다. 결국 활약형에서의 권력 표출 서사는 여주인공의 능력과 권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이다. 이에 반해 해결형에서의 권력 표출 서사는 남장을 통한 허구적 권위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물들의 비윤리적인 태도를 바로잡는, 갈등 해결을 위한 극적 장치를 수행한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여성의 적극적인 개입의 수단이 남장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에 있다. 중세에 여성이 가문의 테두리를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 제한을 풀기 위해 남장을 이용한 것인데, 그것은 활약형과 같이 국가를 구하는 등 범접할 수 없는 공적을 세우는 것과 다르게 소소하게 등장인물 주변에 벌어진 사건 사고를 적극 개입하도록 돕는 방식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서사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각각 매우 다르다. 활약형은 영웅적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한 상상-환상이 주요한 배경으로 자리한다. 반면 해결형은 문제 상황과 마주했을 때 다양한 전략을 상상해보고, 그에 따라 상황을 수습하거나 사고를 전환하는 과정을 예행 연습해보는 내

적 서사 실험 장치라 하겠다. 그래서 활약형의 주인공이 영웅과 같은 비범한 존재인 데에 비해 해결형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또 활약형은 운명적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데에 비해 해결형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해 움직인다. 독자의 경우도 다르게 접근한다. 활약형이 이상적 모델을 생산하기 위한 판타지로 기능한다면, 해결형은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상황 중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한다.

가령 <이춘풍전>은 작품 독법에 있어 이춘풍의 비윤리적인 모습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김씨의 문제의 상황과 그 해결 과정과 그 방식에 더 많이 주목해 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자들은 김씨를 보며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라는 질문을 던졌고, 작가는 이에 응답해 ‘그녀를 비장(裨將)이라는 신분으로 위장시켜 춘풍과 추월의 문제를 해결했어’라고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해결형은 탈출형에서 보았던 오래된 전통을 발전-변형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회피가 아닌 적극적 개입을 통한 해결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미감을 자아낸다.

이것은 같은 해결형 남장 화소가 활용된 <낙동야언>의 경우를 함께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낙동야언>에서 양애옥은 간신이자 권력자인 유근의 집안에 늑혼을 당한다. 양애옥은 이미 오응석을 마음에 두고 있던 바, 이 늑혼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유세가(遊說家)로 남장하여 유근의 라이벌 왕창에게 찾아간다. 왕창에게 찾아가 그녀는 왕창에게 유근과 대립하지 말고 그의 딸을 유근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다시 유근에게 찾아가 왕창과 대립하지 않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방안, 즉 그의 아들을 왕창의 딸과 정략 결혼시키라는 계책을 내놓는다.<sup>23</sup> 양애옥은 이처럼 남장을 통해 그녀에게 부여된 문제 상황을 해

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30~35쪽 참조).

22 이것은 일면 해결형 남장 화소에서 볼 수 있는 남성 속이기를 통한 조롱과 웃음 자아내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해결형에서의 속이기는 권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해결형은 동등한 남성으로서 남주인공과 친분을 쌓는 등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며 원래 멀리했던 여성의 모습은 희석되도록 만든다. 즉 해결형에서의 남장 화소는 멀리하던 여성을 재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하며, 이것은 로맨스적 감정을 유발한다. 이와 다르게 해결형에서의 속이기는 반드시 권위를 수반하게 된다. 여주인공이 연기한 대상의 구체적 직업(비장, 유세가 등)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다.

23 <洛東野言>(민속박물관본), “曰: “相公之於劉大監, 既非兄弟骨肉之親, 而親兄弟尚有爭錢財, 況所親非兄弟, 而其爭也, 甚於錢財者乎? 廉藺之鬻, 必起於趙, 崔慶之亂, 復作於齊矣. 勢不兩立, 楚強則秦弱, 權有所歸, 非成則乃璜, 何不交權而固結乎?” 瓚曰: “何如斯可以交權乎哉?” 曰: “結以朋友, 而勿頸之交易疎, 盟爲兄弟, 而鬩牆之怒每起, 莫如與之嫁女取婦矣.””

결할 수 있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해결형 남장 화소는 상대방이 속을 가능성이 큰 권위자로 위장함으로써 권력을 얻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춘풍전>이 공적 권위를 통해 해결했다면 <낙동야언>은 설득 방식을 통해 해결한 것이다. 이처럼 해결형 남장 화소는 권력의 실질이 아닌 외관을 일시적으로 차용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활약형처럼 여성 주체가 권위의 정당한 소유자가 되거나, 훼손형처럼 가치 전복을 이루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해결형의 주체는 ‘권위 있는 척’하는 연기를 통해 일시적 상황 통제에 성공하지만, 이후 그 권위는 스스로 해제되거나 무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해결형은 권위의 ‘전유’가 아닌 ‘도치’ 또는 ‘임시 대여’에 기반한 서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해결형 남장 화소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작가가 시물레이션을 돌려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남장을 통해 작가 나름의 해답을 내놓은 셈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에게 위협 상황을 부과하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남장 화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 시물레이션은 학습자에게 전략적 판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해결형 남장 화소는 위기의 가정 상황을 상정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허구적 서사를 내뿜을 수 있는지 실험하는 사고실험의 유희적 장소다. 남장이라는 적극적 해결 수단책을 활용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재치 있는 서사를 만들고 확장해 나간다. 이는 고전소설 속 남장 화소가 단지 젠더 전복의 상징에 머무르지 않고, 이야기 내부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장치로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이다. 이제 4장에서는 해결형 남장 화소의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4. 해결형 남장 화소의 교육적 시사점

이번 장에서는 해결형 남장 화소가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우수한 교육적 효과를 자아낼 수 있는지 그 교육적 함의와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해결형 남장 화소는 고전소설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거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작동한다. <이춘풍전>의 김씨가 보여주듯, 남장은 영웅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장기적 수행이 아니라,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 선택으로 등장한다. 이는 활약형 남장이 요구하는 자기 증명이나 신분 상승과는 달리, 위기 국면에서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해결형 남장 화소는 단순히 젠더를 전복하거나 상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인공이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기 위한 ‘서사 설계 장치’로 기능한다. 교육적으로도 이 화소는 특정 정체성을 체현하는 훈련이 아니라, 가상의 위기 상황을 설계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구상해보는 사고 실험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즉 해결형 남장 화소는 학습자에게 위장을 통한 역할 전환, 전략적 판단, 문제 설계와 같은 능력을 모의 실험하게 하는 서사적 장치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sup>24</sup>

24 또한 해결형 남장은 이분법적 젠더 해석을 전제하지 않아도 이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적 확장 가능성을 갖는다. 활약형은 남성성/여성성의 충돌, 젠더 질서 전복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 독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결형은 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전략이라는 실용적 맥락 속에서 남장을 수행한다. 이는 단지 ‘여성이 남성으로 변장했다’는 젠더 코드보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에 가장 적절한 역할을 설계했다’는 기획자적 상상력의 표현으로 기능한다.

한편, 필자 역시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몹시 어렵고 위험하다 여긴다. 우선 생물학적인 성도 그렇거니와 젠더의 가치를 훼손시키려 한다, 혹은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젠더 교육 방법론의 위험성에 대해 지면을 할애해 언급하려는 까닭은 젠더를 분류·규정한 후 다양한 젠더를 경험하게 하고 자신만의 젠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교육에 대한 위험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그의 저서에서 젠더란 완전히 내면화, 체현될 수 없는, 그래서 선형적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무엇이라고 정의한다(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6, 349~350쪽). 탈-경계에 서 있는 현재의 인간, 즉 포스트-휴먼 시대에 들어온 지금, 여성영웅소설을 통한

지금까지 해결형은 학계에서도, 교육적 측면에서도 그리 주목받지 못한 감이 있다. 앞서 해결형이 문제적 가정 상황을 제시하고 사고실험을 전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해결형 남장 화소는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데에 익숙한 화소로, 학생들에게도 이런 가상의 상황을 통한 교육적 효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인간은 어떤 해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는 것이다. 이것을 필자는 ‘현실 적용 능력 향상’ 효과라 부르고 싶다.

최근 뇌인지과학을 선도하고 있는 아널 세스는 ‘예측 모델 이론’을 주장하며 인간이 보다 잘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기존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경험을 가상으로 상상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sup>25</sup> 결국 예측 모델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의 뇌는 생존에 유리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이야기에 몰입(탐닉)하도록 설계된 것과도 관련된다.<sup>26</sup>

불가능한 현실의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게 하는 상상력, 즉 해결형 남장 화소는 남장을 통해 여성이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될지 지켜보게 만든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해결 방식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새로운 예측 모델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게 한다. 더 나아가 학생 자신의 상황에 이것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완벽히 같지 않겠지만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다른 인물로 ‘변신’할 수 있다면 어떤 인물로 변신할지 상상-선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인물로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지 능동적으로 상상의 서사를 펴볼 수 있다. 그리고 동료들의 예측 모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예측 모델을 수정하여 자신의 삶에 더 알맞은 것을 체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은 문학의 보편적 특징이다. 그러나 해결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까닭은 이 가상 시뮬레이션에 특화되었기 때문이다. 해결형 남장 화소는 간단한 상황 및 맥락 제시를 할 수 있으며, 주인공의 선택 역시 일회적으로 그치기에 간단히 그 해결 방안을 알려줄 수 있다.

고전문학을 접하는 학생들이 작품을 어려워하는 까닭은 ‘재미’가 없기 때문이고, 재미가 부재한 원인은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 동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sup>27</sup> 그렇다면 능동적 학습 동기를 키우기 위해선 결국 지금 배우고 있는 고전문학이 학생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뇌가 가상 시뮬레이션, 즉 이야기 모델을 많이 접하도록 몰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해결형 남장 화소는 고전문학 교육 방안에 대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한 쪽의 「상사도」를 장안성 열두 거리에 걸어두고 천금의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필시 사지 않을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이에 한번쯤 그것을 볼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호사가들이 이따금 이야기한다면 저들 또한 귀가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니 듣고 찾아오게 만들 따름이다. 어찌 만금의 값어치를 하는 계책이 아니겠는가?”

춘앵이 말했다.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이내 춘앵이 남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갈아 입으니 단정한 장부가 되었다. 그 모습은 팔뚝은 짧아 소매가 길며 허리가 얇아 띠가 느슨했고, 팔자(八字)의 고운 눈썹은 부끄러운 듯한 자태가 스스로 드러났으니 한 잔의 아황주(鵝黃酒)를 마신 듯 붉은 연지가 찍힌 흔적이 여전하였다.<sup>28</sup>

27 엄은열, 「고전문학 '학습(學習)'의 경험과 '재미'의 문제에 대한 논의」, 『고전문학과 교육』 2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37~63쪽 참조.

28 <洛東野言>, “以一幅相思圖, 掛之於十二街頭, 求價千金, 則人必不買, 而伊人往來之間, 庶或見之, 不然則好事者往往傳之, 彼亦有耳之人必也, 聞而來訪矣. 豈非萬金之計乎?” 春鶯曰, “謹奉教.” 乃持男服而着之, 儼成一美丈夫, 而臂袖長腰細帶緩, 八字城眉羞澁之態自露, 一片鵝黃粉脂之痕

젠더 교육 연구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선행된 젠더적 분류와 규정 역시 해체되어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25 아널 세스, 장혜인 역, 『내가 된다는 것』, 흐름출판, 2022, 31~52쪽.

26 조너선 갓셜, 노승영 역, 『스토리텔링 애니멀』, 민음사, 2014, 85쪽.

위는 <낙동야언>에서 양애옥의 시비 춘앵이 남장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양애옥이 직접 남장을 하기 전 등장한다. 이 장면의 문제 상황은 오웅석과 헤어진 양애옥이 오웅석을 다시 만나보고 싶었지만 그의 이름도,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기에 아쉬움이 큰 상태였다. 그렇게 혼자 앓다가 시비 춘앵이 양애옥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고, 양애옥은 비밀을 알려주며 춘앵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 부탁은 춘앵이 남장을 하고 밖에 나가 오웅석이 그려준 「상사도」를 장안성에서 값비싸게 팔라는 것이다. 그러면 장안 사람들에게 「상사도」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과거를 치르러 온 것으로 예상되는 오웅석의 귀에도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서사는 오웅석의 귀에 들어가 오웅석이 자신이 그린 「상사도」를 알아본 뒤 춘앵을 만나 양애옥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 상황이 해결된 것이다.

그러나 <낙동야언>의 해결 상황이 정답지라고 할 수 없다. 양애옥은 이전에 나온 「상사도」를 활용해 오웅석을 찾았지만, ‘오웅석 찾기 프로젝트’는 새로운 서사를 낳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가령 오웅석이 「상사도」 말미에 지은 시<sup>29</sup>에 대해 오웅석을 그리워한 양애옥이 (오웅석은 보지 못한) 화답시<sup>30</sup>를 적게 되는데, 이 작품을 유심히 읽은 독자 혹은 학생이라면 이것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여 춘앵이 노래를 지어 부르며 함으로써 오웅석과 만나는 방안을 만들 수도 있다. 새로운 해결 방안, 즉 예측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이전 서사의 화소들, 그리고 상황의 맥락들을 유심히 살피고 나름대로 문제 상황에 대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는 교육 방안은 고전문학을 어렵게 여기는 학생들에게

尙在.”

29 <洛東野言>, “삼백육십일 가운데 며칠이나 기뻐했는가, 눈물이 은하수에 보태져 물결을 이루네. 인간의 이별은 무슨 연유에서 비롯되는가? 한 해에 한 번 만나기가 여기 또한 어렵구나(三百六旬幾日歡, 淚添銀河作波瀾, 人間離別緣何事, 一歲一逢此亦難).”

30 <洛東野言>, “구름비단을 찢는 베틀머리 월궁에서 열리면, 해마다 아름다운 약속 은하수 건너오네. 하계에서도 칠월 칠석을 중요히 여기니, 어찌 한번 가서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가(雲錦機頭月殿開, 年年佳約渡河來, 下界非無重七夕, 如何一去復難回)?”

새로운 흥미를 자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 적용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점은, 해결형 남장 화소가 제공하는 시물레이션 효과가 단지 독자가 기존 서사를 따라가며 예측하는 ‘내면적 추론’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 구조를 창안하는 ‘창작적 외화’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서가 사고 실험의 장이라면, 쓰기는 그 사고 실험의 결과를 능동적으로 구현하는 실천의 장이다. 이 두 과정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 시물레이션의 수용과 생산이 순환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학습 연쇄로 작동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국립경국대학교 <고전문학과 스토리텔링>(2025-1학기) 수업에서 남장 화소의 문제 해결적 성격과 그 서사 구조를 학습하게 한 다음, 학습자들이 직접 새로운 서사를 창작해보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목: “나는 누구로 변신할 것인가: 가상의 위기 상황, 너만의 해결 전략”

[1단계] 상황 만들기(교수자 제시): 늑혼으로 쌍둥이 누이가 권력자 집안에 잡혀 3일 뒤 혼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2단계] 선택과 변신: 남장/여장 or 다른 직업/정체성을 설정해 봅니다.

[3단계] 해결의 과정: 획기적인 해결 전략 제시(설득, 모략 등)

“내가 현실에서 위기/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과제에 대해 학생들은 활발한 이야기 구조 실험을 시도했다. 한 조는 남자가 무당으로 여장하여 권력자의 집에 침투한 뒤 “이 혼례는 재앙을 부른다”고 설득해 혼인을 무산시키는 계책을 구사했다. 이 과정은 수업에서 배운 <낙동야언> 서사에 대한 변형이자 재맥락화로 읽을 수 있

다. 또 다른 조는 외계인의 여성 도축이라는 극단적 세계관을 설정하고, 남동생이 여장을 하고 도축장에 침투해 누나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도구 활용, 정보 은폐, 정체성 전환 등의 전략을 총동원했다. 이러한 설정은 해결형 남장 화소의 '위장-침투-구출' 구조를 확장하여 상상한 흥미로운 변형 사례이다.

한편 고전판타지 장르로 확장한 조도 있었는데, 이들은 여성이 음악을 할 수 없는 세계관에서 여주인공이 남장을 통해 악단에 입단하고, 여성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구조를 고안하였다. 다만 이 예시는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갈등 수습보다는 여주인공의 능력 발휘와 제도 변화를 초점으로 두고 있어, 해결형보다는 활약형 남장 화소의 성격에 더 가까운 측면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수업에서는 유형 간 차이를 논의하고, 각 유형의 서사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감별하는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해결형 남장 화소의 기본 구조를 다양한 서사적 맥락으로 확장하며 문제 설정, 위장과 변신, 전략적 설득, 국면 전환이라는 핵심 기능을 창의적으로 실험하였다. 나아가 유형 감별과 수정 과정은 학습자 스스로 서사적 시뮬레이션의 구조적 원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해결형 남장 화소는 고전소설 교육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사적 상상력을 촉진하는 유의미한 교육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 화소는 여성 인물이 비범한 능력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위기 상황에 주체적으로 개입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실천 가능한 문제 해결 전략을 구상하고 수행해 보는 서사 시뮬레이션의 장을 마련해 준다.

이는 활약형이나 휘절형과 같은 기존 남장 유형이 주로 젠더 전복의 서사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고전 서사를 동시대적 현실의 감각 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동시에 이러한

실험은 '이야기'를 통해 문제 상황을 구성하고 해석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상상해 보는 문학 교육의 본령을 되묻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해결형 남장 화소는 고전소설 교육의 초점을 '지식 전달'에서 '사고 실험'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서사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 5. 나가는 말

이 글은 고전소설에 나타난 남장 화소를 유형화하고, 그중에서도 '해결형 남장 화소'의 서사적 작동 방식과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춘풍전>을 중심으로 하여, 남장이 단순한 위장이나 젠더 전복의 기호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전략적 장치로 작동함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해결형 남장 화소는 고전소설 속 여성 인물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설계하고, 수행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는 '서사 시뮬레이션'의 실험 공간으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결형 남장 화소는 기존에 활약형이나 휘절형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남장 서사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문제 대응 능력과 전략적 판단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장치를 제공한다. 특히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화소는 단지 고전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감상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예측 모델을 설계하고, 그 서사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남장 서사를 창작적으로 재현한 활동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해결형 남장 화소가 문학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유연하고 실용적인 사고 실험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이처럼 해결형 남장 화소는 고전문학을 통해 학습자가 '다른 인물로 변신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해 보는' 주체적

독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고전의 서사 구조를 현대적 사고 실험의 틀로 전환시키는 유효한 매개가 될 수 있다.

결국 해결형 남장 화소는 단지 한 시대의 문학적 변이 양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육 현장에서 고전 문학을 생동감 있게 재구성할 수 있는 창의적 자원으로 재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남장 화소는 젠더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 고전문학과 현대 교육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실천적 장치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이춘풍전〉(서울대가람문고본)

〈洛東野言〉(민속박물관본)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6, 아세아문화사, 1980.

신해진, 〈이춘풍전〉, 『역주 조선후기 세태소설선』, 월인, 1999.

### 2. 단행본 및 논문

권순공, 「〈이춘풍전〉 연구사」, 『고소설연구』, 월인, 2002.

김민경,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홍계월전〉 교육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김정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본 여성영웅 홍계월」,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김태영, 「조선 후기 고전소설 속 여성 영웅의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_\_\_\_\_, 「『하진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소설 화소의 활용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57, 우리어문학회, 2017.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학회, 2006.

\_\_\_\_\_, 『한국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사진실, 「〈정수정전〉이분의 계통과 변모양상」,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1, 집문당, 1998.

서혜은, 「〈정수정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2006.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 62·63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3.

엄태웅, 「〈방한림전〉에 나타난 가부장의 부재와 재현의 양상」,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여세주, 『남성취절소설의 실상』, 국학자료원, 1995.

염은열, 「고전문학 ‘학습(學習)’의 경험과 ‘재미’의 문제에 대한 논의」, 『고전문학과 교육』 2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유요문, 「〈낙동야언〉에 나타난 남북개척의 문제 해결적 성격과 그 소설사적 맥락」, 『Journal of Korean Culture』 64,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24.

\_\_\_\_\_, 「고전소설에 나타난 남녀 관계 갈등 전환 양상과 여성영웅소설 다시 읽기: 현대 혐관(嫌關) 서사 유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103, 우리말글학회, 2024.

이유경, 「고소설의 전쟁 소재와 여성영웅 형상: 여성영웅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_\_\_\_\_,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 〈홍계월전〉과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이유리, 「방한림전의 소수자가족 연구」, 『한국문학논총』 75, 한국문학학회, 2017.

이윤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2000.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7(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_\_\_\_\_,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 사재동 편,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IV, 중앙문화사, 1995.

이지원, 「젠더 의식 중심의 여성영웅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 국문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 형상화 비교」,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_\_\_\_\_,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소설」, 『국문학연구』 16, 국문학

- 회, 2007.
- 장경남, 「〈이춘풍전〉을 통해 본 가부장권의 형상」, 『우리문학연구』 14, 우리문학회, 2001.
-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 전용문,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정병현, 「방한림전의 비극성과 타자 인식」,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정병현·이유경,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 조현우, 「19세기 남성 주체의 '곤경'과 '환멸': 〈이춘풍전〉의 공간과 인물 구도」, 『고소설연구』 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 \_\_\_\_\_, 「방한림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 조홍윤, 「〈방한림전〉에 나타난 젠더 문제의 맥락 연구: '남성 만들기'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 차옥덕, 「〈방한림전〉의 여성주의적 시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최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잡전환 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최진경, 「여성영웅소설 교육 방안 연구: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한길연, 「영웅소설과 대하소설의 주인공의 환상체험의 차이와 그 의미」, 『한국문화』 42,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 EBS교육방송 편집부, 『EBS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국어영역 독서·문학(2022)(2023학년도 수능대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2022.
- \_\_\_\_\_,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2023)(2024 수능대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2023.
-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최건형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 아닐 세스, 장혜인 역, 『내가 된다는 것』, 흐름출판, 2022.
- 조너선 갯설, 노승영 역, 『스토리텔링 애니멀』, 민음사, 2014.
-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6.

## Abstract

## A Preliminary Study on the Problem-Solving Cross-Dressing Motif in <Ichunpungjeon>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Four Types of Cross-Dressing Motifs

Yoo, Yo-Moon |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problem-solving cross-dressing motif in classical Korean fiction. While previous research has largely focused on cross-dressing within female hero narratives from a gendered perspective, this paper categorizes cross-dressing motifs into four functional types—escape, heroic, subversive, and problem-solving—and focuses specifically on the latter. Through an analysis of the nineteenth-century vernacular novel <Ichunpungjeon>, the paper investigates the motives, methods, and narrative effects of cross-dressing used by the female protagonist.

In this motif, cross-dressing is not a symbol of gender transgression or identity transformation, but a strategic act of impersonation that grants temporary authority to resolve social or familial crises. Such narrative structures encourage readers to engage in problem-solving simulations, fostering skills in scenario-based reasoning. Furthermore, this paper presents an actual case of classroom application, in which students participated in a storytelling activity that involved designing crisis situations and generating original narratives. Through this pedagogical lens, the study repositions the cross-dressing motif as a narrative laboratory for imaginative experimentation, offering new directions for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beyond traditional gender discourse.

**Keywords** problem-solving cross-dressing motif, <Ichunpungjeon>, narrative simulatio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deceptive authority

이 논문은 2025년 5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6월 20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